

## 6월 선교회 모임 자료

### 드보라

본문 사사기 4:1-10 찬양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 본문 요약

##### 이스라엘 평야, 전쟁의 벌판

갈릴리 지역의 강성한 하술 왕 야빈이 장군 시스라를 통해 철 병거 900대로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싯돌로 할례를 행할 정도로 변변한 무기조차 없어 군사력의 차이가 컸습니다. 하나님은 이 압제의 고리를 끊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삿 4:1-3; 수 5:2)

##### 선지자 드보라, 꿀벌!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지혜롭게 재판하던 여성 선지자였습니다. 고대 서아시아 사회에서 여성의 지도력은 일반적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 통념을 깨고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햇불' 랍비듯이나 '번개' 바람이 아닌, '꿀벌'이라는 이름의 드보라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삿 4:4-5)

##### 드보라 VS 바락

레위 지파 출신의 힘센 용사 바락은 정작 전쟁에 나설 용기가 없어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는 바락과 달리, 드보라는 망설임 없이 '내가 반드시 함께 가리라' 답하였습니다. 힘과 체격은 타고나지만, 용기는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조입니다. (삿 4:6-9)

##### 드보라의 지혜

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는 평지인 기손 강가에, 병거 없는 이스라엘은 산지인 다불산에 진을 친 것이 자연스러운 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군사 상식과 달리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서 싸우라 명령했는데, 우기마다 그 골짜기 전체가 진창이 되는 지형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스라는 이를 모른 채 자신의 병거만 믿고 과시하였습니다. (삿 4:13-15)

##### 드보라의 승리

병거를 물고 추격하던 시스라의 군대는 진흙에 빠져 꼼짝하지 못했고, 철갑의 무게 때문에 병거에서 내려와도 더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전멸하였고,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승리는 힘센 자나 선택받은 자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몫임을 보여줍니다. (삿 5:21; 4:15-16)

#### > 기도

세상의 힘과 조건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두려움 앞에 머뭇거리는 바락이 아닌 담대히 나아가는 드보라의 믿음을 구합니다. 승리가 힘센 자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전장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 나눔 질문

- 1 하나님은 왜 '꿀벌' 같은 드보라를 사용하셨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드보라처럼 세우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 2 바락처럼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동행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함께 가 준 '나의 드보라'는 누구였나요?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준 적이 있나요?
- 3 승리는 누구의 몫인가요? 바락의 용기보다 드보라의 신앙이, 병거보다 말씀의 순종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며 싸우고 있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